

농정 동향/주요 이슈

2022. 9. 19.(월)

■ (언론 동향) 2022.9.16. "한국농어민신문" 보도

- 내년에도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
 - 농식품부, 1000억 원 배정
 - 올해대비 예산 반토막 불구
 - 인상분의 총 80%까지 지원

비료가격 100% 상승에 따른 소득 감소액(단위:만원)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무기질비료 가격인상분의 80%가 할인된 가격으로 농가에 판매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오른 무기질비료의 원자재 가격 강세가 꺾이지 않고 있지만, 원자재 수급은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예산안에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무기질비료 인상분 구입지원을 포함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1000억원의 예산도 배정했다. 물론 이 예산은 상반기 공급 물량 6개월 동안의 반쪽 예산이지만, 비료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내리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 공급 물량의 경우 원자재가격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추경 예산 또는 농협자금 등을 활용해 농가에 대한 비료구입비 지원을 지속하는 방안을 열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무기질비료 가격인상분에 대해 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비료업체 부담 10% 포함) 등의 비율로 총 80%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비료가격 인상분이 고스란히 농가 부담으로 전가될 경우 농가소득 감소는 물론 전체 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료가격 인상에 대한 지원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뒷받침하고 국가경제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난 8월 18~19일 열린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연구팀은 비료가격 상승분을 고스란히 농가가 부담했을 경우를 가정한 피해 규모를 발표했다.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소득조사 50개 작목과 통계청의 농축산물 생산비조사 5개 작목 중에서 51개 작목을 선정해 2020년 시점을 기준으로 비료 가격 상승률 100%를 가정하고 분석했다.

연구팀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비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득감소율이 가장 큰 작목은 밀이다. 밀은 비료 가격에 대한 농업소득 탄력성이 '-0.500'으로 계산돼 비료가격이 100% 인상되면 소득이 50% 감소하는 것이다. 또한 겉보리(-0.380), 파프리카(-0.300), 시설장미(-0.247), 쌀보리(-0.186) 등의 순서로 높았다. 특히 맥류는 10a당 소득이 다른 작목보다 낮고 경영비에서 비료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 비료가격에 매우 민감하게 적용한다. 2020년 기준 작목별 경영비에서 무기질비료 비중은 밀 12.5%, 쌀보리 12.1%, 겉보리 10.8%, 논벼 7.6% 수준이다.

이와 함께 작목별 소득 감소 추정에서는 전국의 농지 중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벼가 266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딸기(축성) 347억원, 마늘 337억원, 토마토(반축성) 332억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료가격이 100% 인상돼 농가들이 그대로 구입할 경우 51개 작목에서 발생하는 농업소득 감소액은 무려 7390억원으로 산출됐다. 또한 51개 작목의 산업연관분석을 하면 전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1조38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 이병성 기자 >

■ (언론 동향) 2022.9.18. "한국농업신문" 보도

○ 부산물비료 원부자재가격 큰 폭 상승...생산량 감소 이어질까

- 톱밥·피마자박 등 전년비 12.8~50.7% 상승
- 퇴비 10년 이상 정부지원사업 공급가격 동결...업계 부담 가중

농기자재업계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호소 하고 있는 가운데 납품가격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사장 노학진)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부산물비료 생산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등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재료에 따라 낮게는 12.8%에서 높게는 50.7%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정 동향/주요 이슈

2022. 9. 19.(월)

원료가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축분 등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부숙유기질비료(이하 퇴비)의 경우 주원료 가격은 큰 변동이 없으나 부원료인 톱밥 가격이 전년대비 18.4% 상승했고, 유박류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유기질비료의 경우 주원료인 피마자박 가격이 전년대비 50.7%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자재 등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년대비 포장재 12.8%, 래핑필름 15.3%, 파레트 19.2%, 유류대 29.2%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이 동 원부자재 가격 인상율을 토대로 제품가격을 추정한 결과, 퇴비는 20kg당 300~350원 수준, 유기질비료는 20kg당 2500~3000원 수준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동 가격조사 당시 환율 및 전기료 상승요인 등이 일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인상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산물비료 생산업체는 농협중앙회가 내년 공급용 정부지원사업물량 공급계약시(10월경) 원부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인상요인을 고려해 납품가격을 현실화하는 한편, 정책당국에서도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조합 측은 “퇴비의 경우 10년 이상 정부지원사업 공급가격이 동결됨에 따라 경영상의 애로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고, 유기질비료의 경우 작년부터 원료가격이 큰 폭 상승함에 따라 올해 공급량이 이미 10%이상 줄어든 상황”이라며 “내년도에 납품할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공급계약 체결시 납품단가 현실화 여부에 따라 부산물비료의 공급안정 또는 공급부족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최정민 기자 >